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9호

[토론회] 대한축구협회, 이대로 좋은가?

2024년 3월 6일(수) 오후 2~4시

**불의의 사고에도 도전한 박찬종 씨 에세이**

**다리를 잃고 사이클 선수가 됐다...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이은정 연합뉴스기자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피겨 서민규, 주니어 세계선수권 깜짝 금메달... 한국 남자 최초**

김경윤 연합뉴스 기자

**세계 주니어 선수권 3년 연속 입상... 피겨 신지아 "개인 최고점, 칭찬하고파"**

김희준 뉴시스기자

**선후배 선수 간 괴롭힘으로 징계는 프로배구처음**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 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종합)**

하남직 연합뉴스기자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박성용 BBS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토론회

# 대한축구협회, 이대로 좋은가?

---

2024년 3월 6일(수) 오후 2시~4시

지난 2월, 한국 국가대표팀이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하며 여론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번 클린스만 감독 경질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대한축구협회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한다.

---

일시 2024.3.6.(수) 14:00~16:00

장소 스페이스엠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5길 17, 도원빌딩 4층)

중계 문화연대 유튜브채널

사회 정희준(문화연대 집행위원)

토론 이동연(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정윤수(스포츠 평론가, 성공회대 교수),

이경재 (YTN 스포츠부), TBA

주최 문화연대

---

# 다리를 잃고 사이클 선수가 됐다...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

2022년 9월 23일, 평소와 다른 없는 퇴근길이었다. 평범한 회사원 박찬종 씨는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사고는 번개가 치듯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5톤 트럭이 그를 덮쳤다.

트럭에 깔려 온몸이 부서지는 통증에도, 의식이 희미해지는 가운데서도 아내 영지 씨 얼굴만 떠올랐다. 코로나19 여파로 혼인신고만 한 채 신혼 생활을 한 두 사람은 이듬해 5월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다.

박씨는 병원에 입원한 지 나흘 만에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는 병상에서 우울감을 없애려 자전거에 더 매달렸다. 자전거 유튜버로도 활동했던 그는 다시 자전거를 타기로 결심했다. 병원복을 입고서 새로 산 자전거에 올라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내가 의족이 없지. 의지가 없냐"고 반문했더니 몇만 건의 '좋아요'가 이어졌다. 이 게시물은 그의 삶의 변곡점이 됐다.

박씨가 최근 펴낸 '내 다리는 한계가 없다'는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고도 장애인 사이클 선수로 거듭난 박씨의 회복과 도전 과정을 기록한 에세이다.

그는 사고 112일 만에 의족에 의지해 걷기 시작했다. 유튜브에 올린 '다시 걷게 되던 날' 영상은 조회수 220만회를 넘겼다.

심지어 병상에서 그는 사이클 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그의 사연이 알려지자 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감독으로부터 제안받았다. 그는 사고 1년여 만인 2023년 11월 장애인 사이클 전국체전에 도전해 은메달 4개를 땀다. 벨기에에서 열린 'UCI 패러사이클링 월드컵'에도 태극마크를 달고 참가했다. 처음엔 의족으로 자전거를 탔지만, 지금은 의족 없이 한쪽 다리로 페달을 밟는다. 앞으로 목표는 패럴림픽 금메달이다.

그는 결혼식에 꼭 두 발로 걸어 들어가겠다는 다짐도 이뤄냈다.

중환자실에서 그가 아내에게 한 프러포즈는 "다리가 없어도 나랑 결혼해줄래?"였다.

결혼식 날 휠체어를 타고 입장한 그는 중간에 일어서서 두 발로 걸어 들어갔다.

장애를 수용한 놀라운 도전과 회복력에는 박씨 특유의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한 태도가 밑바탕이 됐다. "보너스로 사는 삶을 부정과 분노로 채우는 것은 너무 아까웠다"고 한다.

그는 자기 모습을 흥학에 빚대고 더는 양말 짝을 맞추지 않아도 돼 좋다며 '암살 개그'도 한다. 절단환자들이 존재하지 않는 신체 부위에서 겪는 '환상통'에도 유쾌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박씨는 "나는 그날 다리를 잃었고, 그로 인해 일과 커리어를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지는 않았다"며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삶이 남아 있었기에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돌아본다.

"나는 이제 다리 하나로 살아간다...보너스로 얻은 두 번째 삶은 첫 번째 삶보다 더 섬세하게 행복을 느끼고, 함께 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사랑하며...살아간다. 그렇게 한 개뿐인 내 다리에는 한계가 없다."

현대지성. 296쪽.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1059900005?input=1195m>

# 피겨 서민규, 주니어 세계선수권 깜짝 금메달... 한국 남자 최초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 샷별 서민규(15·경신고 입학예정)가 한국 남자 최초로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서민규는 2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3.45점, 예술점수(PCS) 76.72점, 합계 150.17점을 받았다.

그는 쇼트프로그램 80.58점을 합한 최종 총점 230.75점을 받아 2위 나카타 리오(일본·229.31점), 3위 아담 하가라(슬로바키아·225.61점)를 제치고 우승했다.

한국 선수가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시상대에 오른 건 처음이다. 남녀 선수를 통틀어도 이 대회 우승을 차지한 건 2006년 김연아(은퇴) 이후 18년 만이다.

한국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고려대)조차도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메달은 획득하지 못했다. 다만 피겨 남자 싱글 선수들은 대부분 20대 이후 전성기를 겪기 때문에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의 위상은 시니어 대회보다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10대 후반의 나이에 전성기를 맞는 여자 싱글과는 차이가 있다.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노트르담 드 파리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에 맞춰 연기를 시작한 서민규는 첫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깔끔하게 뛰었다. 이어 트리플 악셀 단독 점프는 1회전인 싱글 점프로 처리해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나 서민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침착하게 트리플 루프를 클린 처리했다. 플라잉 카멜 스핀으로 호흡을 가다듬은 서민규는 코레오 시퀀스에 이어 빠른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으로 연기 완성도는 높였다.

가산점 10%가 붙는 후반부 연기도 나쁘지 않았다. 그는 트리플 플립-트리플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를 흔들림 없이 처리한 뒤 곧바로 트리플 러츠를 무결점으로 뛰었다.

트리플 플립-더블 악셀-더블 악셀 시퀀스 점프도 깔끔했다. 마지막 점프인 트리플 살코를 뛴 서민규는 체인지 풋 싯 스핀을 레벨로 처리하며 연기를 마무리했다.

키스앤크라이존에서 1위 점수를 확인한 서민규는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며 우승의 기쁨을 표현했다.

같은 종목에 함께 출전한 이재근(수리고)은 총점 212.22점으로 6위에 올랐다.

같은 날 열린 아이스댄스 프리댄스에선 김지니-이나무(이상 경기도빙상경기연맹) 조가 총점 134.43점으로 16위를 기록했다.

# 세계주니어선수권 3년 연속 입상... 피겨 신지아 "개인 최고점, 칭찬하고파"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차세대 간판 신지아(15·세화여고)가 개인 최고점에 뿌듯한 마음을 드러냈다.

신지아는 1일 대만 타이베이 아레나에서 열린 2024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38.95점을 획득, 쇼트프로그램(73.48점)과 합해 총점 212.43점을 받아 2위에 올랐다.

쇼트프로그램, 프리스케이팅에서 모두 개인 최고점을 경신한 신지아는 2022년 탈린 대회, 2023년 캘거리 대회에 이어 3회 연속 은메달을 획득했다.

다만 라이벌 시마다 마오(일본·218.36점)에 밀려 '피겨여왕' 김연아 이후 18년 만에 우승 꿈은 이루지 못했다.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였던 신지아는 프리스케이팅에서 4회전 점프를 구사한 시마다를 넘지 못했다.

경기 후 신지아는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을 통해 "프리스케이팅에서 마지막 순서로 출전하게 돼 조금 긴장이 됐지만,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잘 마무리한 것 같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신지아는 이번 시즌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2위 이내로 입상했다. 두 차례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서 모두 우승했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는 은메달을 땀다. 지난 1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신지아는 "길었던 시즌의 마지막 대회에서 개인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다"면서 "이번 시즌 응원해주시고 지켜봐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신지아는 4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자료 출처: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2\\_0002645630&clD=10501&pID=10500](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302_0002645630&clD=10501&pID=10500)

# 배구연맹 "인권침해 있었다" ... 페퍼 오지영에 '1년 자격정지'(종합)

한국배구연맹(KOVO)이 '후배 괴롭힘 혐의'를 받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 리베로 오지영(35)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KOVO는 27일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연맹 회의실에서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지난 23일 첫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벌위는 이날 회의에서는 징계를 확정했다.

KOVO에서 구단 내 선후배 간의 괴롭힘 혐의로 징계를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장호 KOVO 상벌위원장은 "오지영 선수가 후배들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과 인권 침해 등을 인정해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며 "양측의 주장이 다르긴 하지만, 동료 선수들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분명히 인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KOVO 상벌위는 "이 같은 행위는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이며 앞으로 프로스포츠에서 척결해야 할 악습"이라며 "다시는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고자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을 보냈다.

오지영에게 내린 1년 자격정지는 처벌 근거 중 하나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 규정 제10조 ① 4항 '폭언, 그 밖에 폭력행위가 가벼운 경우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한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오지영이 후배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하거나, 열차려를 위한 집합 등을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KOVO 상벌위는 훈련 중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한 오지영의 말은 폭언으로 규정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

3시즌 연속 최하위가 확정된 페퍼저축은행은 최근 오지영이 후배 선수 A, B를 지속해 괴롭혔다는 의혹을 자체 조사한 뒤 지난 15일 관련 내용을 연맹 선수고충처리센터에 신고했다.

오지영은 23일에 이어 이날도 상벌위에 출석해 직접 소명했다. 23일에는 홀로 출석했지만, 이날은 법률대리인과 동행했다.

후배 선수 A도 두 차례 상벌위에 모두 나와 피해 사실을 위원들에게 알렸다.

다음 장 계속

자체 조사를 한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도 상벌위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추가 자료를 확인한 상벌위는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다만 상벌위는 오지영에게 "열흘 안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

오지영 측은 "우리의 소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며 "재심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 정민회 변호사는 "이 사건이 쟁점화되기 전에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오지영이 약 2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오지영이 A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이어 "오지영과 B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지자 이번 사건이 불거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이 사건이 불거진 원인이 피진정인과 진정인 사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외국인 감독(조 트린지)이 선수단 정서나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주전과 비주전 선수를 분리한 것에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감독의 결정에 따라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선수가 경기를 펼치는 날에 비주전 선수는 경기장이 아닌 훈련장 또는 숙소에서 대기한다"며 "경기장에 가지 않은 비주전 선수가 경기 시간에 훈련장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졌고, 이에 고참급 선수들이 '경기 진행 중일 때는 외출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A가 외출을 했고,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소식을 접한 오지영을 포함한 고참 선수들이 사고를 낸 선수들에게 질문을 하다가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A, B가 팀을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오지영은 B에게는 아예 이 문제에 관해 질문도 하지 않았고, 평소 신뢰 관계가 있는 A에게는 '언니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너를 위한 길'이라고 질책한 사실은 있다"고 설명을 보탤다.

오지영이 A에게 한 질책이 '괴롭힘은 아니다'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KOVO 상벌위는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오지영의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 구단 관계자는 "선수단 내에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걸 조사를 통해 확인했고, 오지영의 소명도 충분히 담아서 KOVO에 보고서를 제출했다"며 "상벌위의 결정이 나왔으니 곧 구단의 입장을 정리해 팬들에게 알리겠다"고 전했다.

#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제재한다

앞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공연이나 운동경기의 입장권 부정판매나 체육계에서 잇따르는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축소·은폐, 신고 방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전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공연이나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의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조사에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하는 등 축소·은폐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신고 방해나 취소 강요 및 신고 의무 위반때도 제재근거를 마련해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와 신고 의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주간 스포츠 소식

[GOAL 인천] '홈 개막전' 맞이한 인천 조성환 감독... "좋은 경기력은 당연, 결과 만들어야"

<https://www.goal.com/kr/%EB%89%B4%EC%8A%A4/a/blt2428b72401b87873>

역전승 빼기 박은 손흥민, 경기 최우수선수·최고 평점 '독차지'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3005300007?input=1195m>

파리 올림픽 선수촌 공개... 골판지 침대에 에어컨은 없어

<https://www.mbn.co.kr/news/world/5007173>

한국야구위원회, 해남서 유소년 우수선수 훈련캠프 개최

<https://yna.co.kr/view/AKR20240301029000007?input=1195m>

이랜드월드 스파오, 2024 파리 패럴림픽대회 선수단 단복 제작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029100030?input=1195m>

K리그 개막 D-1... 링가드부터 아르한까지 '외인 선수 열전'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091700007?input=1195m>

부산세계탁구선수권대회 흥행 성공... 10일간 누적 관중 3만명

<https://www.yna.co.kr/view/AKR20240228019200051?input=1195m>

주니어세계新+세계선수권 7위까지... 무럭무럭 자라는 이나현, 한국 빙속은 '함박웃음'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4030301039910083001>

지난해 MLB 선수의 평균 연봉 60억원... 전년 대비 7.1% 상승

<https://www.news1.kr/articles/5337205>

# 체육시민연대

##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